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文理科大學 副教授 徐 元 燮

《目 次》

I. 導 言	1. 製作年代와 製作地
II. 作者 攷	2. 字 號
1. 家 系	3. 素 材
2. 生 涯	4. 形 式
III. 作品 攷	IV. 結 言

I. 導 言

李朝 儒學史上 많은 道學者가輩出한 中에서도 朱子學을 集大成한 이로는 退溪를 미를 분이 없다.

退溪의 學問 成就是 可히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기에 東方天子라는 稱을 듣고 있다. 그가 到達한 學問의 境地에 對해서 言及한 이가 많은 中에서도 退溪 學問의 骨子를 말한 이로는 그의 門人 鄭唯一이 있으니, 이제 그의 評을 보기로 한다.

「先生의 學問은 오로지 程朱를 標準으로 삼는다. 敬과 義가 夾持하고 知와 行이 並進하며 表裏가 如一하고 本과 末을 함께 말하며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잡어 새운다.」

先生學問 一以程朱爲準 敬義夾持 知行並進 表裏如一 本末兼學 洞見大原 植立大本 若論其至 吾東方一人而已⁽¹⁾

이와같이 退溪가 成就해 놓은 學問이 偉大하기에 흔히들 退溪를 道學者 哲學者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退溪를 論할 때 道學者 哲學者的인 面만을 強調할 것이 아니라 詩

1. 退陶先生言行冊錄 卷之二 類篇 學問 三張.

人 文學者的인 面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強調되어야만 하리라 본다.

예나하면 退溪는 「哲學者型的 道學者라기 보다는 畵人型的 道學者」라고⁽²⁾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道學者라 하면 情緒的인 生活이 缺如한 듯한데 此해서 退溪만은 그렇지 아니하여 豊富한 情緒的인 生活을 누리고 있었다. 退溪가 어느 程度 豊富한 情緒的인 生活을 누렸는가 하는 것은 그의 陶山日記에 잘 記錄되어 있으니, 이제 그 部分만을 옮겨보면 이렇하다.

「冊을 던지고 지팡이를 짚고나가 欄干에서 연못을 玩賞하고, 壇에 올라 草를 찾고, 밭을 돌면서 藥草를 심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고, 或은 바위에 앉아 硯石을 戲弄하고, 溪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或은 磯上에서 고기를 보며, 舟中에서 白鷗와 親하면서 마음대로 逍遙하다가 景致를 만나면 興趣가 일어나 한껏 즐기다가 돌아오면 寂寞한 傍에 冊이 篋에 가득하다. …… 山色이 즐거울고 草木이 우거지고 風霜이 차고 明月이 싸늘하게 빛을 내니, 四時의 景致가 서로 다르고, 興趣 또한 無窮하다. 大寒 大暑 大風 大雨가 아니면 어느 때 어느 날 나가지 아니함이 없다. 나가면 이와같고, 돌아오면 또 이와같다.」

撥書擲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詩藥 搜林槲芳 或坐石弄泉 登
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若大山鳥嚶鳴 時物暢茂 風宿
刻厲 明月疑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 大風大雨 無
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³⁾

이 얼마나 悠悠自適하는 情緒的인 生活 態度인가? 참으로 詩人 文學者的인 風貌가 엿보인다.

또, 退溪는 다른 俗儒와는 달리 우리 詩歌에도 깊은 理解와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으니, 陶山十二曲跋과 漁父歌跋에서 言及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李相燾: 退溪日記의 空間(瑞文文庫) p.146. 1973.

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記日記 八卷~九卷.

그는 우리 詩歌를 理解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直接 12首의 連時調의 數篇의 歌辭를 創作하기도 하였다.¹⁴⁾

이제 本稿에서는 第1次的인 作業으로 退溪의 時調의 歌辭 중에서 그의 學問과 思想이 가장 잘 反映된 陶山十二曲을 가지고 作者攷와 作品攷에 나누어 作者攷 中 生涯는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七의 西涯 柳成龍이 撰한 年譜와 退溪先生年譜(卷之一·二)를 主로 해서 作成키로 하고, 作品攷 中 主題와 素材는 그의 漢詩와 對比 考察코자 한다.

II. 作者攷

1. 家 系

退溪의 眞鄉은 眞城이다. 그의 始祖?頤은 麗末에 眞寶縣吏로서 司馬試에 及弟하였고, 後에 아들 子脩의 榮貴로 奉朝大夫 密直使에 追贈되었다.

그의 아들 子脩는 明書業으로 及弟하여 官이 通憲大夫 判典儀寺事에 이르렀다가 恭愍王 10年 辛丑(1361 A. D.)에 裨將으로서 鄭世雲을 머라 紅巾賊을 討伐하여 京城을 恢復한 功으로 安社功臣 松安君에 號封되었다. 그는 또 倭寇를 避해서 眞寶縣에서 安東府 豐山縣 南廳崖里로 移居하였다가 後에 周村에 옮겼다.

松安君의 子 云侯는 官이 中訓大夫 軍器寺副正에 罷있으나 曾孫 堦의 榮貴로 通訓大夫 司僕寺正에 追贈되었고, 監察 權希正의 女와 結婚하여 아들 頤을 낳았다.

頤은 蔭補로 中直大夫 善山府使가 되었고, 後에 孫子인 堦의 榮貴로 通政大夫 兵曹參議에, 또 曾孫 況의 榮貴로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에 追贈되었는데, 그는 知甫州事 金挺之의 女를 娶하여 繼陽을 낳았다.

繼陽은 進士로 아들 堦의 榮貴로 嘉善大夫 兵曹參判에, 後에 孫子 況의 顯達로 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義禁府事에 追贈되었다. 그는 曾祖代부터 신이던오 周村에서 禮安縣 北쪽에 있는 溫溪里의 山水 勝景을 지칭하여 이

4. 時調로 陶山十二曲과 歌辭로 道德歌 樂貧歌 琴語歌 相存狀 勸義指路歌 등이 있다.

곳에卜居하였다.

副司直 金右庸의 女를 娶하여 植와 耦를 낳았다.

繼陽의 長子 植는 바로 退溪의 考가 되는데, 그는 世祖 9年 癸未(1463 A. D.)生으로 少時에 동생 耦와 篤志力學하여 尙書를 博覽하고 文章에 힘쓰네 科擧文에는 別로 專念치 아니하여 屢次 科擧에 떨어져다가 燕山君 6年 庚申(1500 A. D.)鄉試에 魁科하고, 그 다음해 辛酉에 進士에 中試되었으나 出仕치 않았다.

後에 아들 滄의 榮貴로 嘉善大夫 史曹參判에, 또 況의 榮貴로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判義禁府事에 追贈되었다.

禮曹正郎 金漢哲의 女를 娶하여 2男 1女를 얻었으나 夫人 金氏는 29歲로 別世하였고, 다음은 別侍衛 朴緇의 女를 娶하여 5男을 얻었으니, 朴氏 夫人은 退溪의 母夫人이다.

한편 次子 耦는 睿宗 1年 己丑(1469 A. D.) 4月 生으로 燕山君 4年 戊午(1498 A. D.) 生員으로서 式年文科의 丙科에 及弟하여 承文院 權知副正에 서 出發하여 通政大夫 同副承旨로 있다가 中宗反正에 功이 있어 舊義靖國功臣(4等)이 되어 淸海君에 封해졌고, 嘉善大夫 右副承旨는 거처 判曹參判 · 江原道 觀察使를 歷任하였다. 그는 詩文에 能했고 淸廉하기로 이름이 높았다.⁶⁾

2. 生 涯

한 作家의 生涯를 두고 몇기로 나눠본다는 것은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作家의 生涯가 順坦치 않으면 않을수록 그렇다고 본다.

筆者는 여기에서 退溪의 一生을 1. 修學期 2. 出仕期 3. 講學期의 3期로 區分해보고자 한다.

곧, 修學期는 燕山君 7年 辛酉(1501 A. D.) 退溪 出生으로 부터 33歲되던 中宗 28年 癸巳(1533 A. D. · 大科及弟前年)까지를 말하고, 出仕期는 34

5. 退溪先生 世系之圖, 先考贈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成均進士 碩陰紀事, 先妣贈貞夫人 金氏 · 朴氏 墓碣誌, 叔父戶曹正判府 昌榮碣誌, 韓國人字人事典(新丘文化社) 參照.

歲되던 中宗 29年 甲午(1534 A. D.) 文科及第에게 副正字에 除授된 때로부터 49歲되던 明宗 4年 己酉(1549 A. D.) 監司에게 辭狀을 내고 12月 歸鄉할 때까지를 말하고, 講學期는 明宗 5年 庚戌(1550 A. D.) 50歲 때 陶山 西쪽에 寒栖庵을 짓고 讀書과 後學敎誨에 힘쓸 때로부터 宣祖 3年 庚午(1570A. D.) 12月 棄世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第3期 講學期는 元來는 致仕期와 再仕期로 區分해야 옳을 듯하나, 再仕期는 52歲(4月) 때 上京하여 55歲되던 2月에 歸鄉할 때까지 2年 11個月의 留京期間을 除外하고는 5個月 2個月 8個月 程度 留京했을 뿐 나머지는 鄉里에서 學問과 著作生活과 後進講學에 專念했기 때문에 이를一括해서 講學期라고 하였다.

1). 修學期

退溪 李況은 燕山君 7年 辛酉(1501 A. D.) 11月 25日 辰時에 慶尚道 禮安縣 溫溪里 本家에서 8男妹 中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2歲되던 6月에 父 贊成公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8男妹 中 長子 潁만이 結婚하였을 뿐 나머지는 幼沖해서 오직 母夫人에 依해서 養育되었다.

이러한 形便이라 어린 子息들을 成婚시킬 때까지의 母夫人의 苦生은 말할 수 없었으니 退溪가 쓴 「先妣贈貞夫人朴氏墓碣識」에 這問의 事情이 잘 記錄되어 있다.

「(先君의) 三年喪을 畢한 後에 祭祀는 家廟에 맡기고 (母夫人은) 그 곁에 築室해서 살면서 稼穡과 蠶桑에 힘썼다.

甲子·乙丑年에는 税金 徵收가 酷甚多急하여 사람들이 많이 破産하고 窮乏하네 夫人만은 能히 民 飢의 難慮를 圖謀했기 때문에 舊業을 잃지 않았고, 諸子가 漸漸 成長함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中에서도 學資를 마련해서 遠近을 不問하고 배우게 하였다. 늘(子息들에게) 訓成하시되 文藝에만 專念치 말고 持身과 行動을 삼가할 것을 重하게 하셨다.

· 당해오는 事物을 比喻하거나 일을 因해 敎訓하시되 일찌기 親切함과 警覺心을 주지않음이 없었고, 말씀하시기를 「世人은 늘 寡婦의 子息은 教育이 없다고 철끝는데 너희들이 白首를 功들이지 않으면 어찌 譏弄을 免하겠는가」

고 하겠다.

喪三年畢 以祀事付家嗣 築室其旁而居之 益修稼穡蠶桑之務 當甲乙之際 賦斂酷急 人多破產零替 而夫人能圖難慮遠 不失舊業 及諸子漸長 則 又按貧資給 令就學於遠邇 每加訓成 蓋不惟文藝是事 尤以持身謹行爲重 遇物設譬 因事爲教 未嘗不丁寧警切 曰世常嗇寡婦之子不教 汝輩非百倍其功 何以免此譏乎⁽⁶⁾

이 墓碣識에 依하면 母夫人 朴氏는 婦德있는 婦人으로 子女들의 教育에 精誠을 기우렸고, 이러한 精誠은 諸子 中 特히 막내아들인 退溪에게 많은 感化와 影響을 주었을 듯하다.

退溪가 讀書한 것은 6歲 때부터이다. 이윽 老人에 千字文을 解讀하는 이가 있어 退溪는 그에게 千字文을 배우는데 아침이면 반드시 洗滌하고 울타리 밖에서 앉아서 배운 바를 몇번 默誦한 後에 들어가 俯伏해서 글을 배우는 際에 마지 嚴師에서와 같이 하였다.

12歲(中宗 7年 丁申) 때에 叔父인 松齋公 께에게 論語를 배우는데 「子弟는 室에 들어오면 孝道하고 나가면 恭敬해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 惕然히 自警해 기고나 「人子의 道理로서 미망히 이와 같으야 할 것이다.」고 했고, 또 一日은 理字를 松齋公에게 물기를 「무릇 일의 옳은 것이 이 理인니까?」고 하니 松齋公이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이미 文義를 理解하였다.」고 하였다.

松齋公은 性稟이 簡素하고 嚴格하여 子弟에게 稱讚하는 일이 적었는데 退溪와 그 兄 濬에 對해서만은 每樣 稱讚하기를 「亡兄에 이 兩兒가 있으니 안가신가와 같다.」, 「門戶를 지킬 者는 반드시 此兒다.」고 하겠다.

松齋公은 退溪에게 그 母夫人 朴氏 다음으로 많은 感化를 준 분이다.

退溪는 그 叔父의 墓碣文에서 「平素 居室 左右에 있는 圖書 史籍을 즐기기를 마치 牛馬가 풀을 먹는 것과 같이 하고 비록 疾病이 支離한 때라도 손에서 冊을 놓을 일이 없었다.

6.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六 先妣贈貞夫人朴氏墓碣識 四冊.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또 文章이 淸瞻하고 典雅하며 더욱 詩에 能하여 한때 名勝을 만나면 반드시 술을 마시고 詩를 읊으며 暢適하면 形骸를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平居左右圖書 嗜之如芻豢 雖疾病支離 手不釋卷 爲文章 淸瞻典雅 尤長於詩 其與一時名勝相遇 必命酒哦詩 暢適忘形⁷⁾

退溪를 哲學者型的 道學者라고 하기보다는 詩人型的 道學者라고 말하는 것도 이때 그의 叔父의 文學的 詩的 素養을 크게 影響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14歲 때는 陶淵明의 人間됨을 欽慕하여 그의 詩를 골라 耽讀하였고, 20歲(中宗 15年 庚辰) 때에 周易을 읽고 그 뜻을 講究하기에 거의 寢食을 잊을 程度여서 恒常 몸이 파리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退溪는 20歲 以前에는 經書 뿐만 아니라 많은 詩文도 涉獵 耽讀했음을 알 수 있다.

退溪 21歲되던 中宗 16年 辛巳(1521 A. D.)에 進士 瓚의 女인 許氏와 結婚하여 2年 後인 癸未 10月에는 長子 穉을 낳았고, 또 이해에 成均館에 遊學하여 河西 金麟厚와 相從하였다.

27歲(中宗 22年 丁亥)되던 가을에 慶尚道 鄉試의 進士試에 居首, 生員試에 第2에 合格하였고, 10月에는 次子인 家를 낳았으나 11月에는 不幸히도 夫人 許氏가 逝去하였다.

그 翌年 戊子 春에 進士會試에 二等이 되었요, 30歲(中宗 25年 庚寅)에 承事 權의 女인 權氏와 再婚하였으며, 그 翌年 6月에는 側室에서 아들 毅을 낳았다.

32歲 때는 文科別試에 第2가 되었요, 그 翌년에는 慶尚道 鄉擧에 第1이 되었요, 34歲되던 中宗 29年 甲午(1534 A. D.) 3月에 式年文科의 乙科에 及弟하였다.

2) 出仕期

退溪가 처음 받은 벼슬은 34歲되던 4月에 承文院 副正字에 除拔된 것이니, 6月에는 正字에 오르요 7月에 歸省하였던가 10月에 著作으로 還朝하

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六 叔父戶曹參判府君 墓碣識 八張.

여 12月에는 務功郎·博士가 되었다.

36歲되던 中宗 31年 丙申(1536 A. D.) 3月에 宣務郎, 6月에 成均館 典籍 兼 中學教授, 9月에 戶曹佐郎이 되었고, 그 32年 9月에는 承議郎에 오르고 10月에는 母夫人 朴氏의 喪을 當하였다.

40歲되던 中宗 35年 庚子(1540 A. D.) 正月에 司諫院 正言으로 還朝하여 奉直郎, 承文院校檢 知製教을 거쳐 10月에는 弘文館 校理에 陞職되었고, 11月에는 通善郎이 되었다.

그 33年 4月에 司憲府 持平, 5月에 修撰, 10月에 世子侍講院 文學을 兼하고 11月에 다시 司憲府 持平이 되었다가 이어 刑曹正郎으로 옮겼다.

42歲되던 2月에 議政府 檢詳으로 忠清道 御史가 되어 救荒의 能否를 檢察次 나갔다가 4月에 復命하였고, 이어 5月에는 舍人으로 陞差되고 8月에는 江原道 御史로 갔다 와서는 12月에 司憲府 掌令이 되었다.

그 33年(43歲) 6月에는 朝奉大夫에 陞階되었고 10月에는 成均館 司成에 陞職되었으나 곧 말미를 얻어 省幕次 歸鄉하였는데 以後 屢次 召還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4歲되던 中宗 39年 甲辰 2月에 弘文館 校理에 召還되고, 이어 4月에는 司憲府 掌令, 8月에는 弘文館 應教 兼 經筵侍講官 春秋館 編修官 承文院校勘에 除授되었고, 9月에 다시 乞暇還鄉하였다가 10月에 還朝하였다.

이해 11月 15日 中宗이 昇遐하매 朝廷에서 天朝에 告訃 請諡使를 보낼새 그 兩表를 退溪가 지었는데, 이는 明 禮部官의 噴賞한 바가 되었다.

仁宗 元年 乙巳(1545 A. D.) 正月에 遠接使 從事官이 되었으나 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月에 軍資監 僉正, 5月에 中訓大夫, 6月에 弘文館 應教, 典翰이 되니, 때에 그의 나이 45歲였다.

仁宗이 卽位 32年인 7月 朔日에 春秋 31歲로 昇遐하자 明宗이 卽位하였다. 이때 倭로 부터 乞和가 있었는데 朝臣 間에 斥和의 소리가 紛紛하자 退溪는 朝廷에서 倭人의 乞和를 拒絕함은 實로 怪嘆한 일이라 하면서 이 일은 「百年 社稷之憂」와 「億萬生靈之命」이 關係되는 일이라 倭人의 和解를 許諾하여 交涉政策을 確立한 것을 上疏하였다.

8 月에는 病으로 辭職을 辭히며 通禮院 相禮에 옮기웠다가 9 月에 司饗院 正에 올랐다. 10 月에 主簿가 大起하여 10 月에 右田 李邑의 啓請으로 割職 當 했으나 이어 司僕寺 正 兼 承文院 參校가 되었고 11 月에는 通訓大夫에 陞階 되었다.

明宗 元年 丙午(46歲) 2 月에 外舅 權公 履이 주하에 乞暇還鄉하였다가 病으로 5 月까지 還朝치 못하자 解職되었고, 7 月에는 夫人 權氏가 逝去하였다.

이에 宦路에 뜻이 없어 退溪之東岩에 養真庵을 構築하고 書冊을 芟하고 지냈다. 8 月에는 校書館 校理, 11 月에 禮賓寺 正, 그 翌年 7 月에 安東府 使에 除授되었으나 不赴타가 8 月에 弘文館 應教에 除授되어 赴朝하였다.

48 歲되던 明宗 3 年 戊申(1548 A. D.) 正月에 丹陽郡守, 10 月에 豊基郡 守에 外補되어 善治를 하였으나 2 月에 次子 家문 잃어 가슴아픈 일을 當하였다.

그 翌年 己酉 寒食에는 先塋에 省墓하고 4 月에는 小白山에 가서 놀았고, 9 月에 病으로 慶尚監司에게 辭狀을 세번이나 내었으나 回報가 없자 그해 2 月에 歸鄉하고 말았다.

3). 講學期

退溪 50 歲되던 2 月에 退溪의 西岫 溪上에 寒栖庵을 構築하고 堂名을 「靜習」이라고 하고 그 속에 파묻혀 讀書을 하였다. 이때의 退溪의 心境을 읊은 詩가 있으니,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⁸⁾

과 같다. 이로 부터 날로 모여드는 學徒가 많아 讀書와 後進 教誨에 힘쓰는 한편 龔岩 李賢輔를 찾아 뵈기도 하고 光影塘을 파기도 하고 諸人과 唱酬 作詩하는 나날을 보네었다.

52 歲 때인 壬子 4 月에 弘文館 校理 知製教로 還朝하였고, 7 月에 誦政

8.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退溪 四十七張.

大夫에 陞資되어 成均館 大司成에 陞任되었으나 病으로 上護軍(11月)에 遷
졌다가 그 翌年 乙卯 11月에 大司成에 再任되고 7月에는 病으로 副護軍에
이어 忠武衛 上護軍(9月)이 되었다.

54歲 때인 明宗 9年 甲寅(1554 A. D.)에는 東宮(2月)과 思政殿(4月)의
上梁文을 지었고, 5月에 刑曹參議, 6月에 兵曹參議, 9月에 上護軍, 11月
에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55歲되던 乙卯 2月 病으로 三辭 解職하여 歸鄉하였고, 6月에는 龔嶽의
請帖을 받고 찾아가 댕하소서 그날에 龔嶽의 行狀과 先妣贈貞夫人金氏와 朴
氏 墓標을 撰하였고, 冬에 淸涼山에 들어가 月餘를 지나다가 돌아왔는데 이
때 많은 詩를 지었다.

56歲되던 明宗 11年 丙辰(1556 A. D.) 6月에 朱子書節要를 編成하였고,
12月에는 鄉約을 草하였고, 57歲되던 3月에는 모여드는 많은 學徒들 때문에
에 寒栖庵이 너무 狹小하여 山水 좋은 陶山 南쪽에 5年 間에 建 陶山書
堂을 卜築하기 始作하였고, 그 翌年 3月에는 滄浪臺(後改名天淵)를 지었다.

이사이 上護軍 僉知中樞府事 弘文館 副提學 知製教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
修撰官에 除授되었으나 屢次 上疏 辭職함에도 允許가 없어 58歲 때인 9月
에는 하는 수 없이 入都하여 10月에 成均館 大司成, 11月에 病으로 上護軍,
12月에는 御筆로 嘉善大夫 工曹參判에 特陞되었으나 病으로 세번 辭狀을 내
나 允許가 없자 그 翌年(明宗 14年 己未) 2月에 留京 5個月만에 歸鄉하였
고, 그 달과 5月 및 7月에 繼續해서 辭狀을 내니, 이에 同知中樞府事に
移職시켜 木道에 命하여 食物을 賜給케 하는 恩典이 있었다. 이때부터 68歲
되던 明宗 22年 6月 召入都할 때까지 故鄉 溫溪里에서 學問과 後進講學
에 힘썼다.

56歲되는 庚申 11月에 高峯 奇大귀과 四端七情辨을 始作하였고, 또 이 해
에는 5年 間에 建 陶山書堂을 完成하였다.

61歲되던 明宗 16年 辛酉(1561 A. D.) 11月에는 陶山雜詠并記의 陶山十二
絶 및 二十六絶 등 陶山勝景을 읊은 많은 詩篇과 連時調인 陶山十二曲을 지

있다.⁹⁾

64歲되는 明宗 19年 甲子 4월에 諸生과 함께 淸涼山에 들어가 遊山諸詩를 지었고, 9월에는 靜庵 趙先生行狀을 撰하고 心無體用辨을 지었다.

그 32年 乙丑 春에 陶山十二曲跋을 썼고, 4월에는 同知中樞府事 職名을 붙여주기를 上奏하여 允許를 얻었으나 12월에 다시 同知中樞府事に 特命되었다.

明宗 21年 丙寅(1566 A. D.) 正月 召命을 받고 上京타가 榮州에서 病으로 辭狀을 올림에 資憲大夫에 陞資되어 工曹判書 兼 藝文館 提學에 陞任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그 32年(67歲) 6월에 赴召入都하였고, 入城 3日간인 28일에 明宗이 在位 22年만에 昇遐하니, 7월에는 「大行王行狀 修撰廳」 堂主이 되어 行狀을 撰하였고, 이어 禮曹判書 兼 同知經筵春秋館事に 除授되어 여러번의 辭狀 끝에 8월에야 病으로 그 職을 免하고 歸鄉하였다가 12월에 璽學十圖를 올렸다.

宣祖 元年 戊辰(1568 A. D. 68歲) 正月에 崇政大夫에 陞品되어 議政府 右贊成에, 5월에 判中樞府事に 除授되매 屢次 力辭하나 允許치 않아 7월에는 하는 수 없이 入都 詣闕하였고, 8月 癸未에는 弘文館과 藝文館의 大提學에 兼職되었다가 그 32年 己巳 正月에 吏曹判書, 이어 判中樞府事に, 또 다시 右贊成에 除授되었으나 거들 받지 않고 鄉里에 돌아가기를 懇請한 結果 69歲되는 3월에야 겨우 允許를 얻어 故鄉에 隱退하게 되었다.

宣祖 3年 庚午(1570 A. D.) 12月 辛丑 酉時에 卒하매 卅에 退溪의 나이 70歲였다.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察監事に 追贈, 文純(道德博聞口文·中正精粹曰純)이라 諡號되었다.

9. 陶山十二曲의 製作年代는 다음 項에서 仔細히 糾明키로 하겠다.

Ⅲ. 作品 攷

1. 製作年代와 製作地

陶山十二曲의 作者와 製作動機 製作年代 製作地에 對해서는 몇보다도 陶山十二曲跋에 仔細히 言及되어 있다.

陶山十二曲跋에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大抵 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 尚世近世 有李龍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嘉靖四十四年 歲乙丑暮春既望 山老書¹⁰⁾

라는 記錄이 있다. 이에서 作者가 陶山老人 李滉이라는 것과, 그 製作動機는 「우리 東方 歌曲은 大體로 多淫哇하이 口에 남은 것이 못되고, 翰林別曲類는 文人의 口에서 나왔으나 矜豪放蕩한데다가 褻慢戲狎을 兼하니 더욱 君子의 所宜로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보다는 近世 李龍六歌라는 것이 있어 世上에 盛傳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낫기는 하나 이 또한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은것이 可惜하다. 老人(退溪)은 本是 音律에 能通하지 못하고 世俗의 樂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閑居하며 病고치는 餘暇에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每樣 詩로 寫했다. 그러나 이제의 詩는 옛詩와는 단라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꼭 歌唱코자 하면 俚俗의 말로써 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風俗과 音節이 그렇시 않은 수 없기 때문이다. 故로 李龍의 六歌를 模倣해서 前後 二篇을 지었는데 前篇을 言

10.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二十四張.

志, 後篇을 言學이라 한다.]고 하여 漢詩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萬若 歌唱하리면 우리 밑으로써 노래를 지어 歌唱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陶山十二曲을 지었다고 할 것과, 또 이 序文은 嘉靖四十四年 乙丑 곧 退溪 65歲 때인 明宗 20年 乙丑(1565 A. D.) 3月 16日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嘉靖 四十四年 乙丑은 序文製作年代가 되는 것이지 결코 時調製作年代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理由로는 陶山十二曲跋에 이것을 지어서는 「兒輩들로 하여금 朝夕으로 익혀 노래부르게 하고 朋床에 기대어 들으며, 또 兒輩自身도 스스로 노래하고 舞蹈케 하고자 함이다. 또 이를 筆寫하여 상자에 감추어 두었다가 때때로 取하여 이를 玩詠하여 自省의具로 삼았다.」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
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姑寫一
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覽者之去取云爾

라고 한 것으로 보아 時調製作年代는 分明히 跋을 쓴 明宗 20年 乙丑 3月 16日 以前이 分明하다.

陶山十二曲에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酒흔디
萬卷 生涯로 樂事] 無窮하에라
이듬에 往來風流를 닐어 브슴홀고

라고 하여 天雲臺 玩樂齋가 보이는데, 年譜에 依하면 玩樂齋를 卜築한 것은 退溪 60歲 때인 明宗 15年 庚申 十一月의 일이다.

陶山書堂成 自是又號陶翁 堂凡三間軒 曰巖栖齋 曰玩樂精舍七間 名曰
龍雲 先生每至陶山 常居玩樂齋…… 其後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也⁽¹¹⁾

11. 退溪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 十三張.

한편 陶山雜詠并記에 依하면 陶山書堂은 退溪 57歲 때인 嘉祐三十六年(明宗 12年) 丁巳에 改卜해서 5年뒤인 辛酉(明宗 16年・61歲)에 完成되었음과 時調에 보이는 天淵臺도 이에 築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自丁巳至于辛酉五年 而堂舍兩屋相成可棲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東一間曰巖棲軒…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淵淵 舍而扁之曰 隨宏精舍…其上爲臺 松棚蔽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施亦隱 築臺而名之 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嘉祐辛酉日 南至山主老病畸人記¹²⁾

이 두 記錄을 가지고 보더라도 陶山十二曲은 그의 60歲인 明宗 15年 11월에 跋을 쓴 明宗 20年 3月 16日 間에 製作된 것이라 이기진다.

그런데 陶山書堂을 構築한 仔細한 經緯와 그곳 形勢를 記述한 陶山雜詠并記와 또 그곳의 빼어난 形勝을 읊은 陶山十八絶¹³⁾과 二十六絶¹⁴⁾ 및 四絶¹⁵⁾을 지은 것이 退溪 61歲 때인 明宗 16年 辛酉(1561 A. D.)의 일이다.

退溪가 陶山十二曲跋에서 그 製作動機에 對해서 말하기를 「性情에 느끼는 마가 있으면 每樣 詩로 불렀다. 그러나 이제의 詩는 옛 詩와는 달라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卽 歌唱코자 하면 俚俗의 말로써 穢이아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風俗과 音節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고 하였고, 또 같은 跋에 陶山十二曲을 지어지는 「兒輩들로 하여금 朝夕으로 익히 불리었고, 兒輩自身들도 노래 부르며 舞蹈하는 것을 즐겼다.」는 記錄으로 보이자 陶山書堂을 지은 後 學問과 後學敎誨에 힘쓰는 한편 그곳 形勝

1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七張~八張.

1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十一張~三十四張.

1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十四張~三十九張.

15. 退溪先生文集 卷之三十九張~四十一張.

은 十八絶詩로 지었으나 이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기에는 不滿底意가 있어 陶山十八絶과 前後해시 陶山十二曲도 製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은 浪溪 61歲 때인 明宗 16年 辛酉(1561 A. D.)에 그의 故郷인 陶山에서 李簡의 六歌를 模倣해서 지은 것이라 여겨진다.¹⁶⁾

2. 主 題

陶山十二曲의 主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言志와 言學이 그것이다. 다시말하면 前六曲은 때를 만나고 事物에 按하여 일어나는 感興을 읊어 言志라 하였고, 後六曲은 學問修德에 臨하는 心志를 읊어 言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時調 12首에 담겨있는 主題는 <表 1>과 같이 細分할 수도 있다.

<表 1>

主 題	時 調 數	該 當 時 調
學 問 修 德	6 首	後六曲 全部
江 湖 閑 情	4 首	前六曲 中 1, 2, 5, 6曲
教 誨 警 戒	1 首	前六曲 中 3曲
戀 主 忠 君	1 首	前六曲 中 4曲

<表 1>과 같이 陶山十二曲의 主題는 學問修德이 6首, 江湖閑情이 4首, 教誨警戒와 戀主忠君이 各各 1首이다.

1) 學問修德의 時調

天雲壑 도라드러 玩樂齋 瀟酒호의
萬卷 生涯로 樂事] 無窮하이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넘어 브슴홀고

雷霆이 破山하야도 孽者는 木들나니

16. 金慶漢氏는 陶山十二曲에 對한 研究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64)에서 「創作年代는 時間的으로 그리 믿지않고 生活이 비교적 安定이었던 陶山書堂을 짓고, 읊어 냈기 始作한 60歲로 부터 그 跋文을 쓴 明宗 20年 65歲 時까지의 5年 間으로 推斷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韓國의 哲學 第一號

白曰이 中天하어도 힘줄은 곧으니
우리는 日日聰明男子로 韓韓곧디 마로리

古人도 날몰보고 나도 古人몰봐
古人은 몰봐도 너던킨 일케었지
너던킨 일케었거든 이너더고 잇달고

當時에 너던킨은 밋히를 보리 두고
어퇴가 드니더가 이제나 도라오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너퇴 모습 마로리

青山을 잇네 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잇대하야 晝夜에 굿이이니논고
우리도 그치디미리 萬古常靑 호리라

愚夫도 일막흥거니 기이니 쉬운가
賢夫도 분디 흥거니 기이니 어려운가
힘거니 어렵거니됨에 늙노주를 몰래라

退溪는 그의 50歲되던 2월에 退溪 西쪽 溪上에 寒栖庵을 지어 堂名은「靜
澗」이라 하고는 그 속에 머물러 讀書을 하는 취지 모이 드는 學徒에게 講學
을 하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때 모이 드는 學徒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은 寒栖庵을 지은지 7年만
인 57歲되던 3월에 벌켜 寒栖庵의 狹小로 陶山 南쪽 山水 좋은 곳에 陶山書
堂을卜築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또 그의 門人 鶴峯 金誠一이撰한 退溪
實記에「先生은 後學 敎誨에 不厭不倦하고 비록 病中이라도 不輟講論하였고,
晩年에 陶山之旣에 精舍를 짓고 滿壁書室에서 學問研索과 存養에 힘썼다.」

訓誨後學 不厭不倦 雖有疾恙 不輟講論 晩年築精舍于陶山之旣 一室
滿壁 圖書滿壁 日處其中 勤存研索 嘉遊晦菴⁽¹⁷⁾

17.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 實記 卅五章.

고 된 것으로도 退溪가 晩年에 일어난 學問修德과 後學敎誨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學問研索과 後進講學에 沒頭한 退溪로서 學問修德을 主題로 한 時調가 많다는 것은 當然之事라 하겠다.

그런데 退溪는 그의 60歲 때인 明宗 15년에 陶山書堂을 完成한 後 그곳 形勝을 十八絶詩로 지었는데, 이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기에는 不滿底意가 있어 陶山十八絶詩와 前後해서 歌唱할 수 있는 陶山十二曲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前項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本曲의 內容을 考究하기에 앞서 먼저 陶山十八絶詩에서 는 몇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詩題부터 보면

陶山書堂 巖栖軒 玩樂齋 陶貞門 淨友塘 節友社 隨雲精舍 觀瀾軒 時
習齋 止宿寮 谷口門 天淵臺 天光雲影臺 濯纓潭 般陀石 東翠屏山
西翠屏山 芙蓉峯

과 같은데, 이는 七言絶句로 되어 있고, 또 二十六絶은 五言絶句로 되었으
니, 그 詩題는

蒙泉 洄井 庭草 潤柳 菜圃 花砌 西施 南浦 翠微 寥朗 釣磯 月艇 樛
澗 漆園 魚梁 漁村 煙林 雪徑 鷗渚 鶴汀 江寺 官亭 長郊 遠出 玉城
校洞

과 같다. 學問修德을 主題로 한 詩調 中에서 十八絶詩에서 보이는 것은 天
雲臺와 玩樂齋 뿐이다.

陶山十八絶詩 中 天雲臺와 玩樂齋詩를 보면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¹⁸⁾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18.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光雲影臺 十三張.

怡理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¹⁹⁾

과 같다. 이는 後六曲 其一에서 山崇水明한 麗景을 一日瞭然하게 볼 수 있는 天雲臺를 옆에 끼고 蕭洒한 玩樂齋에서 萬卷書冊을 벗하고 學問研鑽에 沒頭한 無窮한 樂事를 만한 詩想과 恰似하다. 그런데, 上기한 두 詩보다도 後六曲 其一의 時調와 一致하는 그의 生活 記錄이 있으니 다름아닌 陶山記에 있는 다음과 같은 部分이 바로 그것이다.

對案嘿坐 斂存研索 往往有會 于心輒復 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歷
澤 又不得則 發於憤排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釋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²⁰⁾

이에 依하면 退溪는 晩年에 玩樂齋에서 書案을 對하고 가마이 앉아 조식
히 研索하다가 往往 마음에 會得힘이 있으면 문득 欣然하여 飲食도 잊어버
리고, 또 不適合이 있으면 빗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얻지 못하면 문통이 터
져 發心하는데, 決코 억지로 通하려 하지 않고 한쪽에 두었다가 때로 꺼집
어 내어 虛心하게 생각하여 저절로 깨닫아지기를 기다리는 學問修德의 生活
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學問研鑽의 態度와 思想은 바로 學問修
德의 時調들에 잘 나타나 있다.

끝으로 그의 50歲 때로부터 寒栖庵에 파묻혀 學問研鑽에 沒頭하던 그 當
時의 心境을 읊은 詩의 60歲 때로부터 陶山書堂에서 學問研鑽과 後進講學
에 專念하던 때의 心境을 읊은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²¹⁾

大舜親陶樂日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²²⁾

1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玩樂齋 十一張.
2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21.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退溪 四十七張.
2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書堂 十一張.

退溪의 山十陶二曲 研究

以上에서 살펴본 바에 依하면 陶山十二曲 中 學問修德의 時調는 그 内容이 高雅 鎮重하여 東方夫子라는 稱으로 推仰받는 退溪의 高邁한 人品이 풍기고 있다.

2). 江湖閑情의 時調

이런들 잇다호며 머런들 잇다호로
 草野 愚生이 이러타 잇다호로
 호물며 泉石膏肓을 고터 뜨슴호로
 煙靄로 지불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듬에 芑라논이른 히므리나 업고자
 山前에 有壑호고 壑下에 有水]로다
 배만흔 쉼머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뜨슴 호논고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에 月滿壑라
 四時 佳興 | 사름과 흥가지라
 호물며 魚躍鸞飛雲影天光이샤 어늬그저 이슬고

退溪는 哲學者型的 道學者라기 보다는 詩人型的 道學者라는 것은 導言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는 哲理만을 窮究하는 一般 道學者와는 달리 道를 體得 實踐하는데 힘쓰는 한편 自然을 밋하고 사랑하는 生活로 一貫하였다.

그가 어느 程度 自然을 밋하고 사랑하는 生活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기 위해서 그의 50歲부터 沒年(곧 講學期)까지의 그의 故鄉에서의 生活만을 年譜에 依해서 抄出해 보기로 한다.

50歲 庚戌 2月 始卜居于退溪之西 構寒栖庵
 4月 鑿光影塘
 51歲 辛亥 是年先生不仕家居

韓國斗 哲學 第二號

- 55歲 乙卯 6月 哭聲巖于其第 先生撰行狀
撰先妣貞夫人金氏朴氏墓標
冬 入清涼山躡月而還 有遊山諸作
- 56歲 丙辰 6月 編次朱子書節要成
12月 草鄉約
序朱子書節要
- 57歲 丁巳 3月 得書堂地于陶山之南 有改卜書堂
7月 啓蒙傳疑成
- 58歲 戊午 3月 築滄浪臺(後改名天淵)
4月 遊鰲潭
- 59歲 己未 12月 始編宋季元明理學通錄
- 60歲 庚申 正月 跋曹南冥遊碩流錄
11月 答奇高峯書辨四端七情
陶山書堂成
- 61歲 辛酉 3月 築節友社
4月 既望 泛月濯纓潭
11月 作陶山記
- 64歲 甲子 4月 與諸生遊清涼山 有遊山諸作
9月 撰靜庵趙先生行狀
作心無體用辨
- 65歲 乙丑 8月 與諸生講啓蒙
改定景賢錄
- 66歲 丙寅 10月 撰晦齋李先生行狀且校正文集
作心經後論
- 70歲 庚午 5月 與諸生會易東書院 出陶山與諸生講啓蒙
7月 至易東書院與諸生講心經
8月 易東書院落成往赴
9月 復出陶山與諸生講啓蒙心經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10月 與奇明彦書論心性情圖

11月 以病倦謝道諸生

12月 辛丑 酉時 終于寢

이에서 볼 때 退溪가 自然을 밋하고 自然을 玩賞할 수 있었던 時期는 大體로 그의 50歲 때 寒栖庵을 構築한 때로 부터 52歲되던 4月에 弘文館 校理에 除授되어 赴朝할 때까지의 期間과, 60歲 때 陶山書堂을 完成한 때로 부터 64歲 때 諸生과 더불어 淸涼山에 遊覽한 때까지의 期間을 들 수 있다.

그런데 退溪가 自然에 沒入한 生活을 어느 程度 했는가 하는 것은 寒栖庵 時期에 對해서는 仔細한 記錄이 없어 推斷키 어려우나 陶山書堂을 卜築한 前後 時期에 對해서는 仔細한 記錄이 있다.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搨芳 或坐石弄泉 登臺望巽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則一室岑寂 圖書滿壁… 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 大寒大暑 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²³⁾

이는 自然을 玩賞하는 境地를 넘어서 自然에 沒入 沈潛하는 狀態라 할 수 있다. 陶山記에서 말하고 있는 自然에 沒入한 그의 日常生活은 바로 江湖閑情의 時調들로 表現되어 있고, 또 이는 그의 漢詩 中에서도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中에서 陶山書堂에서의 閒暇로움을 읊은 愛閒詩를 보면 이리하다.

林間茅屋石間泉 閒愛秋風灑靜便
易玩羲文一兩卦 詩吟陶邵五三篇
園容野鹿栖雲宿 窓對沙禽向日眠
不獨身閒心亦泰 任從多病在人先⁽²⁴⁾

2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九張.
原文解釋은 導言의 註3 參照.
2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愛閒 二十二張~二十三張.

3) 教誨警戒의 時調

淳風이 죽다하니 眞實로 거즌마리
 人性이 어디다하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만츨홀가

이는 淳風과 어진 人性에 따라 後進들을 教誨警戒해야 한다고 한 時調이다. 그런데, 中章에서 人性云云은 다름아닌 人間의 性品은 善하다고 하는 孟子的 性善說을 支持한 것이고, 終章의 許多英才云云은 孟子가 말한 君子三樂에서 나온 말이다.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²⁵⁾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不善 水無有不下⁽²⁶⁾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²⁷⁾

退溪는 그의 生涯에서 出仕期보다 故鄕에서 陶山書堂을 짓고 學問修德과 後進教誨에 힘쓴 講學期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退溪는 政治家로서 보다 學者로서 더 有名하고, 또 그를 東方夫子라고 일컫는 所以然도 그의 學問成就가 他人의 追從을 不許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술에서 물러나 後進을 教誨하는 한편 人性의 教化와 禮俗을 고루는데 힘썼으니 그의 이러한 生活態도와 思想은 바로 教誨警戒의 時調로 나타나고 있다.

25. 孟子集註 卷之五 滕文公章句上.

26. 孟子集註 卷之十一 告子章句上.

27. 孟子集註 卷之十三 盡心章句上.

4) 戀主忠君의 詩調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들디도해
 白鷺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넋디 묻호애
 (이등에 고온흔니플 더욱 넋디 묻호되)

李朝 文人 學者들 中에서도 戀主詩(美人詩)를 많이 지은 이로는 松江 鄭澈이 有名하다. 그는 君主로 부터 失寵 乃至는 疏外되어 있을 때마나 自己의 潔白한 心情과 忠誠心을 呼訴하여 疏遠해진 王寵을 回復해 보고자 한 나머지 前後美人曲을 지었고, 또 戀主詩(美人詩)도 지었던 것이니, 이제 그 中 몇首만을 보면

一曲長歌思美人 此身雖老此心身
 明年梅發窓前樹 折寄江南第一春⁽²⁸⁾
 高樓客散夜將闌 歌罷滄浪蠟燭殘
 獨采蓮花何處賀 美人千里香雲端⁽²⁹⁾
 萬事如今各白頭 夕陽西下水分流
 蓬山何處美人在 江月欲生江樹愁⁽³⁰⁾
 三千里外美人在 十二樓中秋月明
 安得此身化爲鶴 統軍亭下一悲鳴⁽³¹⁾

과 같다. 이 詩에서 美人이란 姿態가 아름다운 女人의 뜻이 아니고 君主란 뜻이다.

古今文獻에 나타난 用例에 依據하여 美人의 뜻을 나누어 보면 ① 姿態가 아름다운 女人(美女, 美婦, 美姬, 佳人) ② 恒常 思慕하고 있는 君主 ③ 漢代 女官의 名稱 ④ 才德이 뛰어난 사람(賢人, 君子, 碩人) ⑤ 무지개

28. 松江原集 卷之一 大帖酒席呼韻 十二張.
 29. 松江原集 卷之一 次朴希正韻 十五張.
 30. 松江續集 卷之一 肩中口號 十六張.
 31. 松江續集 卷之一 詠懷(大鶴臨義州時) 二十七張.

(虹)의 別名 ⑥ 梅花의 別名 ⑦ 美男子, 美丈夫, 好男子 ⑧ 美國사람 등으로 區別할 수 있고, 또 美人이란 漢字用語는 主로 漢詩에서는 많이 使用되고 있으나 우리 歌辭나 時調에서는 必로 볼 수 없고 다만 님(임)이란 用語를 쓰고 있다.

美人用語에 代用되고 있는 님의 뜻은 美人의 用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뜻은 없는 것 같고 但只 우리 詩歌에서 使用된 用例로 보아 大體로 戀人(愛人)과 君主의 두가지 뜻으로만 使用된 듯하다.⁽³²⁾ 위 時調의 終章 中 「彼美一人」의 美人이란 다름아닌 君主란 뜻에서 使用된 것이고, 또 附記되어 있는 또하나의 終章인 「이등에 고온훈니물 니옥넛 더 몰흔네」의 님의 뜻 亦是 위에 말한 美人用語에 代用되고 있는 님과 같이 君主인 것이다.

그런데, 退溪는 松江과는 달리 戀主詩가 必로 많지않다. 退溪集에 보면 많지 않는 戀主詩에 主로 恩君 聖主洪恩 恩典 君恩 聖恩 天恩 國恩 恩波 等の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뿐 美人이란 用語를 使用한 詩는 但只 두편 뿐이다.

美人隔天涯 宿昔同所好
相思不能忘 爾來胡不早
我有一畝園 松菊幽貞保
亦有梅與竹 並我形癯槁
悵望無與晤 誰哉肯此道⁽³³⁾

美人何許隔天涯 夢裏相逢玉帝家
獨自覺來臨碧水 一輪明月映金波⁽³⁴⁾

이 두편의 詩는 바로 美人詩로 前者는 梅花를, 後者는 君主를 말하는데, 後者의 戀主詩(美人詩)는 本 時調와 더불어 退溪의 詩 中에서 오직 두편의 戀主詩(美人詩)인 것이다.

32. 拙稿: 思美人曲系遊辭의 比較研究(慶北大論文集 11輯 1967. 12)

33.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秋懷十一首 讀王梅萼和韓詩有感 仍用其韻 三十七張.

34. 退溪先生遺集 卷之二 伏蒙天恩請送退閒且感且慶自述八絕 二十九張.

3) 素 材

素材란 特殊한 價値原理에 依해서 統一된 美的形象으로서의 藝術品에 對해 아직 藝術的으로 形成되지 않은 一切의 原料, 곧 넓은 意味로는 藝術家의 想像活動에 따라 形成되어야 하는 經驗的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데, 一般的으로는 이보다 좋은 意味로 쓰이며 1) 表現 手段으로서의 感覺的 物質的 材料, 即 媒材를 가리키는 境遇와 2) 表現의 對象인 一定한 事物 即 題材를 말하는 境遇가 있다.⁽³⁵⁾ 또 藝術作品的 根本이 되는 材料, 自然的 環境, 人間의 行動 感情 따위⁽³⁶⁾를 말하기도 한다.

陶山十二曲에서 使用된 素材는 다음 表와 같다.

<表 2>

素材	人物	山	墩臺	道	家屋	季節	疾病	萬古	日(太陽)	鳥	我(나)	水
頻度數	13	5	4	3	2	2	2	2	2	2	2	2

雲	風	岩石	湖泉	風流	雷霆	煙霞	明友	生涯	白 駒	萬卷	太平代	淳風
2	2	1	1	1	1	1	1	1	1	1	1	1

人生	天下	幽蘭	歲(年)	魚	谷	野	花	月
1	1	1	1	1	1	1	1	1

<表 2>에 依하면 陶山十二曲에서 使用된 素材는 모두 34種類로, 이 중 5, 6個만을 가지고 이들 素材가 그의 漢詩에서는 어떻게 使用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陶山十二曲에서는 人物이 素材로서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데, 이는 그의 漢詩에서도 많은 人物이 素材 또는 詩題로서 使用되고 있다.

그 中에서 「上龔巖李先生」과 「次韻權生好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高臺新曲賞深秋 手折黃花對白鷗

仰德至今清夜夢 月明時復到中洲⁽³⁷⁾

35. 世界大百科事典(學岡社) 卷九 P. 70.

36.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 P. 1173.

37.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上龔巖李先生 三十七張.

適洛人皆走越如 應緣洗薄喪眞餘
 吾心正似天開鏡 古學還同日照書
 博約淵源寧有雜 明誠宗旨不容疎
 可憐才力能馳騁 只恐當前本領虛⁽³⁸⁾

둘째, 山이 素材로서 5회 使用되고 있는데 時調에서는 具體的인 山名은 보이지 않고 다만 山前 破山 青山 等等으로만 表現되어 있을 뿐이다.

그의 文集에 보면 山을 두고 노래한 詩가 많고 특히 陶山十八絶에서도 東翠屏山 西翠屏山 芙蓉峯 等を 노래한 것이 있으니, 그中 「西翠屏山」을 보면

巖巖翠峯右翠屏 中藏巖岩下閣亭
 高吟坐對眞宜晚 一任雲浮萬古青⁽³⁹⁾

과 같고, 또 遊山書事十二首中 「登山」을 보면 이러하다.

尋幽越澗壑 歷險穿重嶺
 無論是力煩 且喜心期永
 此山如高人 獨立懷介耿⁽⁴⁰⁾

셋째, 墩臺가 素材로서 4회 使用되고 있는데 그中 1회만은 具體的으로 天雲臺라고 表現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有臺 臺下 月滿臺라 하고 있으나 이는 다 天淵臺와 天雲臺임을 짐작케 한다. 退溪는 人物과 山에 못지 않게 墩臺도 素材로 해서 많은 詩를 짓고 있는데 그의 文集에 「戲作七臺三曲詩」⁽⁴¹⁾와 「遊月滿臺七絶」⁽⁴²⁾을 비롯한 많은 墩臺詩가 있는 中에서 陶山十八絶 中の 「天淵臺」와 「天雲臺」를 보면 이러하다.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38.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次韻權生好文 三十七張.
 39.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西翠屏山 十三張~十四張.
 40.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登山 二十九張.
 41.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三十二張~三十四張.
 4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二十一張~二十二張.

江壑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⁴³⁾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嘆長⁽⁴⁴⁾

넷째, 家屋이 素材로 使用된 것이 2회인데 그 中 하나는 玩樂齋이다. 文集에는 蘆石樓, 臨風樓, 嶺南樓, 聚勝亭 統軍亭 等々の 詩도 보이는데 이들을 樓亭으로 보아 家屋과 區別한다면 그의 漢詩에서는 家屋을 노래한 것은 人物 山 墩壑詩에 比하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陶山十八絶에는 陶山書堂, 巖栖軒, 玩樂齋, 隴雲精舍, 觀瀾軒, 時習齋, 止宿寮 等은 노래한 詩가 있는데 그 中 「玩樂齋」와 「隴雲精舍」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璠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⁴⁵⁾

常愛陶公隴止雲 唯堪自悅未輪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閒情野鹿分⁽⁴⁶⁾

다섯째, 季節에 대한 素材 또한 그의 漢詩에 많이 보이는데 그 中에서 「林居十五詠」 中 早春 初夏 早秋 初冬 暮春⁽⁴⁷⁾ 等과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⁴⁸⁾ 等이 代表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또,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詩는 春 夏 秋 冬에 나누고 各 季節을 또 朝 晝 暮 夜로 區分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各 季節의 「暮」詩만 紹介키로 한다.

童子尋山蓀蕨微 盤飧自足猿人飢

始知當日歸田客 夕露衣沾願不違⁽⁴⁹⁾

4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淵壑 十三張.

4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天光雲影臺 十三張.

45.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玩樂齋 十一張.

46.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龍雲精舍 十二張.

47.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三張~四張.

4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五張~七張.

49.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春 五張.

夕陽仕色動溪山 風定雲閒鳥自還
獨坐幽懷誰與語 巖阿寂寂水潺潺⁽⁵⁰⁾

秋堂眺望與誰娛 夕照楓林勝畫圖
忽有西風吹鴈過 故人書信寄來無⁽⁵¹⁾

萬木歸根日易西 烟林蕭索鳥深棲
從來夕惕緣何意 怠欲須防隱處迷⁽⁵²⁾

여섯째, 疾病에 대해서 보면 時調에서도 「太平 時代에 病으로 늘거가네」라고 하였듯이 退溪는 壯年이 되어서는 健康體가 못하고 病弱한 것 같다.

이제 한두 記錄을 보면

況之處身其亦難矣 何也 大愚也 劇病也 虛名也 誤恩也⁽⁵³⁾

余恒苦積病總統 雖山居不能極意讀書⁽⁵⁴⁾

와 같고, 또 그의 年譜에 依하면 辭狀 中에서 病辭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는 官職에 뜻이 없어 자주 辭狀을 내었으니, 그 中 「狀의 形式을 取한 것이 36回, 檄의 形式을 取한 것이 14回, 疏의 形式을 取한 것이 3回」⁽⁵⁵⁾가 되다 그 中 病辭만을 살펴보면

工曹參判病告乞免狀

禮曹判書病告乞免狀 二

判中樞府事 兼 大提學病告乞免狀 三

吏曹判書病告乞免狀 三

과 같고, 또 그의 文集에 病을 詩題로 한 것이 많은데 그 中 몇몇을 보면

-
- 50.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夏 六張.
 - 5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秋 六張.
 - 5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冬 七張.
 - 53. 退溪先生文集 卷之十七 谷奇明彦 三十七張.
 - 5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兩山誰賦并記 八張.
 - 55. 李相殷：退溪의 生記와 學問(瑞文文庫)P. 51.

「病中有客談關東山水慨然遠想復和前韻」⁽⁶⁰⁾ 「病中得金季應書二絕」⁽⁵⁷⁾ 「十六日病吟二首」⁽⁵⁸⁾ 「病中贈別洪同知太虛謝恩越京」⁽⁵⁹⁾ 「三月病中言志」⁽⁶⁰⁾와 같다.

以上的 記錄 뿐 아니라 그의 自銘에도 分明히 「生而大癡 壯而多疾」이 라는 것으로 보아 그는 壯年에 이르러서는 多病하였음이 分明하다.

그래서 그는 손수 藥草를 심어 服藥도 많이 하고 藥을 求하러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다.

撥書攜筇而出 臨軒翫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⁶¹⁾

重重積病等丘陵 藥裏君臣有減增
道驗若神難對證 試方偶中已稱能
庸工失診輕生誤 良劑無傷久見微
但得服勤差少病 何妨瘦驗似枯藤⁽⁶²⁾

青山入夢覺難尋 舊雨來人不到今
與子隔鄰同抱病 不妨分藥共愁吟⁽⁶³⁾

以上에서 大略 時調에 使用된 素材와 또 그 素材가 使用된 漢詩를 찾아 살펴 보았는데, 그 結果 漢詩에서 잘 使用된 素材들이 時調에서도 使用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特記할 事實은 漢詩에서는 그렇게도 많은 詠梅詩의 素材가 된 梅花가 時調에서는 한번도 素材로서 取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56. 退溪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三張.

5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張.

5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二張.

59.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十二張.

60.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十六張.

61.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6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服藥 二十三張.

63.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病中李子發求藥 二十二張.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花草가 있겠지만 退溪가 梅花를 좋아한 것은 一般人에서 저나갈 程度이다. 退溪가 平素에 梅花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臨終 直前까지도 侍奉者에게 盆梅에 물을 주라고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辛丑 酉時 終于寢

是日朝令侍人灌盆梅 酉初命整臥席 扶起而坐恬然而逝⁽⁶¹⁾

또, 陶山書堂을 卜築하고 堂舍 東便에 작은 못을 파서 淨友塘이라 하고, 그 東便에 蒙泉이 있는데 샘위 산기슭을 파놔서 觀瀾軒과 가지린히 하고 그 기에 壇을 쌓고 그위에 梅花 竹松菊花를 심고 節友社라 했다.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對平 築之爲壇 而植其上 梅竹松菊 曰節友社」⁽⁶²⁾

고 할 것으로 보아 陶山書堂 附近에도 梅花를 심어 놓고 이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陶山十八絶에서도 節友社에 梅花를 노래하고 있다.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若節清芬儘飽諳⁽⁶³⁾

故鄉 陶山에 있을 때만 梅花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仕宦時 留京에 있을 때도 盆梅를 길에 두고 사랑하였으니 「漢城寓舍盆梅贈答」과 「盆梅答」의 詩가 바로 그것이다.

願荷梅仙伴我涼 客窓蕭灑夢魂香

東歸恨未攜君去 京洛塵中好艷穢⁽⁶⁴⁾

61.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下 五十八張.

62.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七張.

6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節友社 十一張.

64.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漢城寓舍盆梅贈答 十四張.

閒說陶仙我輩涼 待公歸去發天香
願公相對相思處 玉雪清真共善藏⁽⁶⁸⁾

다시 만해시 退溪는 臨終 直前까지도 益梅에 물주거를 잊지않은 程度로 梅花를 몹시 사랑했던 것이나 漢詩에서와는 달리 時調에서는 이런 素材로 한 것이 한민도 없었다.

4. 形 式

從來 우리는 平時調를 「三章 内外 六句 45字로 된 定型詩」라 하고, 松時調를 「平時調의 初·中章 中 어느 한章이 字數에 있어 無制限한 時調다. 終章에는 큰 變化가 없다」⁽⁶⁹⁾고 하고, 辭說時調는 「初·中章이 다 制限없이 길고 終章도 어느 程度 길어진 時調다」⁽⁷⁰⁾라고 해서 時調의 各 概念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筆者는 지난해 「校本歷代時調全書」(沈載完編著)에 收錄된 3,335首의 時調로써 그 音數律과 概念을 再考한 바 있다.⁽⁷¹⁾ 그 結果 놀랄게도 松時調와 辭說時調는 그 音數律의 考察이 제대로 이뤄진 바도 없고, 概念 規定 또한 이러한 音數律의 考察을 바탕으로 해서 規定된 것이 아니기에 再考의 餘地도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筆者가 考察한 各 時調의 概念과 音數律을 報기로 한다.

平時調는 3章 内外 6句로 各章의 字數는 20字 以內이어야 하고 總字數로 볼 때 37字에서 58字까지로 된 時調로, 그 基本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68.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益梅答 十四張~十五張.

그런데, 註 67, 68의 詩는 누가 寄贈한 益梅를 漢城寓舍에서 그 香氣를 즐기다가 致仕歸田할 때 携帶치 못함을 愛惜히 여기 主人과 梅花가 주고 받는 形式의 詩를 이렇게 지은 것이다.

69. 高晶玉：國語國文學要講 P. 396.

70. 金思嬋：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 254.

71. 拙稿：平時調의 音數律研究(未發表)

時調의 音數律研究(松時調, 辭說時調를 中心으로) 語文論叢 8號 1973·10.

〈表 3〉

章別 \ 句別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初 章	3	4	4·3	4
中 章	3	4	4·3	4
終 章	3	5	4	3

佺時調는 時調 三章 中에서 初·終章은 大體로 平時調의 音數律과 一致하고 中章은 그 字數가 40字까지 긴어진 時調로, 그 基本音數律은 아래와 같다.

〈表 4〉

章別 \ 句別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初 章	3	4	4	4
中 章	3~8	4~8	3~8	4~9
終 章	3	5~7	4	3

辭說時調는 初·終章의 字數가 大體로 佺時調의 中章의 字數와 一致하고, 中章은 佺時調의 最長字數(40字)보다 긴어진 時調로, 그 基本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表 5〉

章別 \ 句別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初 章	3(4·5)	4~8	4(3~8)	4(5~8)
中 章	7~19	6~18	7~18	7~16
終 章	3	4~14	4(3~7)	3(4·5)

그런데, 陶山十二曲은 비록 連時調이긴 하나 그 하나 하나의 時調를 놓고 볼 때 그것은 平時調와 同一하다.

하기에 여기서 는 陶山十二曲의 音數律을 考察하여 그 基本音數律과 平時調의 基本音數律을 對比해 보기로 하겠다.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音數律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6>

章 別 音 數 律	初 章	中 章	終 章
2 3 3 4		3	
2 3 3 5		1	
3 3 3 4		1	
3 4 2 4	1		
3 4 3 4	7	2	
3 4 4 5	1		
3 4 3 6		1	
3 4 4 3		1	
3 5 2 4			3
3 5 3 3	1		
3 5 3 4	2	3	
3 5 4 3			6
3 6 4 3			1
3 7 4 3			1
3 10 4 3			1

<表 6>에 依하면 初章에서는 3 4 3 4調가 7회로 가장 많이 使用되어 있고, 中章에서는 2 3 3 4調와 3 5 3 4調가 各3회, 3 4 3 4調가 2회 使用되어 있고, 終章에서는 3 5 4 3調가 6회, 3 5 2 4調가 3회 使用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이 時調에서 使用된 主된 音數律은 初章에서 3 4 3 4調, 中章에서 2 3 3 4調, 乃至 3 5 3 4調, 終章에서 3 5 4 3調가 된다.

이를 圖示하면 이리하다.

<表 7>

章別 句別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	-----	-----	-----	-----

詩四의 析解 第二號

初章	3	4	3	4
中章	2·3	3·5(4)	3	4
終章	3	5	4	3

〈表 6〉을 가지고 다시 各章은 各句 別로 나누어 各句에 使用된 字數의 類
度數를 모아 그 基本音數律을 배어 보기로 한다.

〈表 8〉

章別	句別 字數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初	2		1
章	3	12		11	1
	4		9		11
	5		3		
	中	2	4		
章	3	8	5	11	1
	4		4	1	9
	5		3		1
	6				1
終	2			3	
	3	12			9
	4			9	3
	5		9		
章	6		1		
	7		1		
	10		1		

〈表 8〉에 依하면 初章 第一句에서는 12首가 3字이고, 第2句에서는 4字
로 된 것이 9首이고, 第3句에서는 3字로 된 것이 11首, 第4句에서는 4
字로 된 것이 11首이다.

中章 第一句는 3字로 된 것이 8首이고, 第2句에서는 3字로 된 것이 5首, 4字로 된 것이 4首로, 3字와 4字가 거의 伯仲勢로 使用되어 있고, 第3句에서는 3字가 11首, 第4句에서는 4字로 된 時調가 9首이다.

終章 第一句에서는 12首가 모두 3字로 되어 있고, 第2句에서는 5字로 된 時調가 9首이고, 第3句에서는 4字로 된 것이 9首, 第4句에서는 3字로 된 것이 9首이다.

이에서 各句에 使用된 字數의 頻度數로써 본 陶山十二曲의 基本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表 9>

章別 \ 句別	第一句	第二句	第三句	第四句
初 章	3	4	3	4
中 章	3	3·4(5)	3	4
終 章	3	5	4	3

<表 7>과 <表 9>를 對比해 볼 때 中章 第1句와 第2句에 나타난 數字에 若干의 差異가 있다.

다시 말하면 <表 7>의 中章 第1句에서의 2字와 3字는 다같이 3回 使用되고 있는데 比해서 <表 9>의 中章 第1句에서는 3字가 8回로 2字의 4回보다 그 使用된 頻度數에 있어 훨씬 優勢하고, 第2句에서 비록 使用된 頻度數의 優劣順에 있어서는 若干 다를지 모르나 주로 3字·4字·5字가 使用되고 있는 것은 同一하다.

여기에서 다시 <表 7>과 <表 9>에 나타난 陶山十二曲의 基本音數律을 平時調의 基本音數律에 對比해 본다면 中章 第2句가 平時調의 基本型에서 破壞되고 있어 結局 陶山十二曲은 平時調의 基本音數律에서 볼 때 中章이 破格된 時調인 것이다.⁽⁷²⁾

72. 陶山十二曲의 音數律은 이미 실려 본 바 있다. 拙稿: 陶山十二曲과 高山九曲歌의 比較研究(清溪 金思燁博士 頌壽紀念論叢) 1973. 3. 12.

IV. 結 語

以上에서 考察한 바에 依해서 그 綜合的인 結論을 此에 記하고 한다.

1. 退溪의 家系를 보면 恭愍王 때 新市賊의 亂에 中宗反正 때에 功이 있어 두루이 封君된 外에는 別로 顯達한 功이 無었고, 一品職에 오른 것은 退溪가 次음이다.

2. 退溪의 生涯를 修學期 出仕期 講學期의 3期로 나누어 살펴 보았고, 또 修學期는 燕山君 7年 辛酉(1501 A. D.) 그의 出生으로 부터 大科及弟 前年인 中宗 28年 癸巳(1533 A. D.) 그의 33歲 때까지로 하였고, 出仕期는 中宗 29年 甲午(1534 A. D.) 文科及弟에서 副正字에 除授된 때로 부터 49歲 되던 明宗 4年 己酉(1549 A. D.) 監司에게 辭狀을 내고 12月 歸郷할 때까지로 하였고, 講學期는 明宗 5年 庚戌(1550 A. D.) 그의 50歲 때 陶山 西쪽에 寒栖庵을 짓고 讀書와 後進 講學에 힘쓸 때로 부터 宣祖 3年 庚午(1570 A. D.) 12月 棄世한 때 까지로 하였다.

3. 陶山十二曲의 製作年代에 대해서도 陶山十二曲跋과 時調에 나타난 天雲齋 玩樂齋의 卜築時期 등으로 相考해 보았고, 그 結果로 이는 退溪의 61歲 때인 明宗 16年 辛酉(1561 A. D.)에 그의 故郷인 陶山에서 李翬의 六歌를 模倣해서 지은 것이었다.

4. 陶山十二曲에 담겨 있는 主題와 該當時調는 다음과 같다.

1) 學問修德의 時調는 全 12首 中에서 6首로 後六曲이 모두 이에 該當한다.

2) 江湖別情의 時調는 全 12首 中에서 4首로 前六曲 中 1, 2, 5, 6 曲이 이에 該當한다.

3) 教誨警戒의 時調는 但 1首로 前六曲 中 3曲이 이에 該當한다.

4) 戀主忠君의 時調는 但 1首로 前六曲 中 4曲이 이에 該當한다.

5. 陶山十二曲에 使用된 素材는 모두 34種類이고, 이 中에서 人物, 山, 墩臺, 家屋, 季節, 疾病 等에 關해서는 그의 漢詩에 使用된 素材와 對比해 보았다. 그 結果 時調와 漢詩에 使用된 素材들은 退溪가 잘 쓰는 素材였다.

洪深의 陶山十二曲 研究

6. 素材面에서 特記된 것은 洪深의 臨終 前까지도 竹竿者의 시기 益梅에 贈주기를 낭부한 程度로 至極이 刺諷된 梅花가 洪深에 의한 洪詩의 素材로 되었는데 比해서 時調에서는 全然 普及치 않았다는 점이다.

7. 形式에 있어서는 時調 12首에서 使用된 音數律을 찾아 圖示해 보았고, 그 結果 初章에서는 3 4 3 4 調가 7回로 가장 많이 使用되었고, 中章에서는 2 3 3 4 調와 3 5 3 4 調가 다같이 3回, 3 4 3 4 調가 2回 使用되었고, 終章에서는 3 5 4 3 調가 6回, 3 5 2 4 調가 3回 使用되고 있다.

8. 또 各章을 4句分法에 依해 나누어 各句에서 使用된 字數를 統計하여 基本音數律을 內어 보았더니, 初章은 3 4 3 4 調, 中章은 3 3(4·5) 3 4 調, 終章은 3 5 4 3 調였다.

9. 이렇게 볼 때 陶山十二曲에서 實地로 使用되고 있는 音數律과 各句에 使用된 字數로 統計한 基本音數律은 다같이 그 中章 第2句가 平時調의 基本型에서 破壞되고 있다.

하기에 陶山十二曲은 平時調의 基本音數律에서 볼 때 中章이 破格된 時調인 것이다.

<1974. 2. 11>